

해외 광우병 파동에 따른 국제곡물가격 동향 변화

김치영 부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유럽 광우병의 파장, 식물성박류 가격 폭등

유럽전역을 휩쓸고 있는 광우병파동으로 식물성박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조달하고 있는 국내 사료업체가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정부가 동물성사료인 육골분 사용을 전면 금지한 이래 모든 유럽국가에서 동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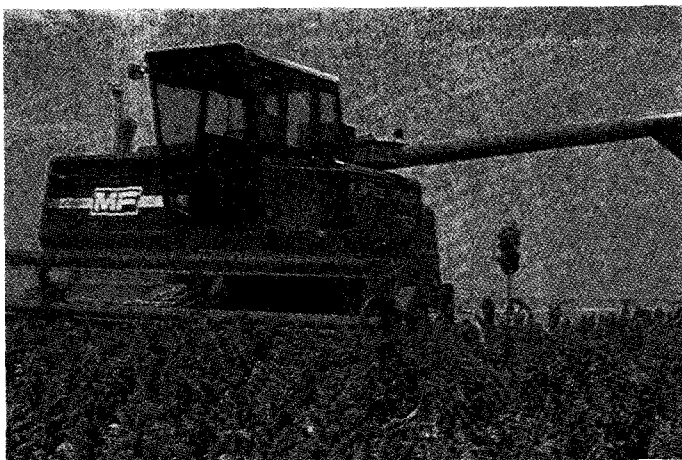
사료인 육골분과 어분사용을 금지시켰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체원료인 식물성박류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의 대체품목인 식물성단백질 원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박의 경우 미국산이 지난 10월 평균가격이 톤당 238\$이었으나 최근에는 260\$대로 급등하였고, 그동안 210\$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왔던 인도산 대두박 역시 235\$대로 급등하였다.



더욱이 대두박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타 식물성단백질에 대한 수요마저 급증하여, 식물성단백질 원료인 채종박, 면실박, 팜유박 등의 품귀현상과 함께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식물성박류가격이 급등하자 대두박



사료업계의 삼중고

그동안 국내 배합사료업계가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은 주요원료인 곡류가격과 원화가치가 버팀목이 되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곡가가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점차 가격인상 부담을 느껴오던 사료업계는 금번의 식물성박류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갈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 원재료인 대두라든가 여타 부산물원료를 포함한 라이신, 메치오닌 같은 유사 대체원료들로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친데 뿔친격으로 그동안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대두박 등의 대체원료로 호주산 루핀시드를 연간 35만톤(2000년기준)이상 수입 사용해 왔으나, 최근 호주의 가뭄피해로 인해 공급이 절반수준으로 줄고 가격도 년초의 톤당 125불 수준에서 170불로 상승했으며, 그나마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는 실정이다.

**앞친데 뿔친격으로
그동안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대두박 등의 대체원료로 호주산
루핀시드를 연간 35만톤(2000년기준)이상
수입 사용해 왔으나, 최근 호주의 가뭄피해로
인해 공급이 절반수준으로 줄고 가격도
년초의 톤당 125불 수준에서 170불로
상승했으며, 그나마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배합사료 가격안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중국산 옥수수가격은 최근 수출재고량의 감소와 WTO가입에 따른 보조금 철폐에 따른 우려감으로 년초대비 10%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옥수수의 대체품목으로 가격견제 역할을 해오던 사료용 소맥이나 호밀 역시 수출 재고량이 소진되어 이제는 가격견제 역할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육골분사용이 적었고, 그나마 유럽지역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축피해에서는 벗어난 듯 보였지만 우리나라 역시 여타 식물성 박류나 사료원료를 외국에서 수입 조달해야 하는 탓으로 유럽과 마찬가지로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원화가치가 연중최저치를 기록하며 12월 20일 현재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달러당 1,217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초대비 7.1% 하락했고, 이로 인한 사료업계의 원가부담만해도 4.2%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료회사들이 GSM-



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사료업체가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환율상승과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을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102 자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곡물구매시 3개월 유산스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곳이 많아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 증가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원화가치의 하락과 함께 원료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축산물가격이 떨어지고 양축농민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자 배합사료업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비교적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했던 사료회사들이 11월 이후 부터는 줄줄이 수익상태가 악화되면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향후 전망과 대응

따라서 지금의 사료곡물시장 상황과 외환시장에서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2001년의 배합사료가격 안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단지 지금과 같은 여건하에서 양축농민들

양축농민들은 양축농민대로 사육두수를 적정규모로 유지하며 축산물 가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산비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료업체는 사료업체대로 현재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료원료의 효율적인 저가구매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인상요인을 최소화시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현재의 곡가상승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료용으로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전지대두를 사료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관세가 30%로 타원료의 0~2%에 비해 크게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사료용완두콩의 관세를 인하시켜 루핀시드와 식물성박류가격의 상승을 견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나마도 시기를 일실할 경우 타원료와 마찬가지로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사료원료의 다양화 시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양돈**

